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김 현 경[†]

진주배영초등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초등학생 4~6학년에게 부적 정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실시하여 4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불안,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 유능감 등이 또래관계문제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불안, 우울 변인이었다. 그래서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은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한다. 또한 불안은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에 의해 또래관계문제가 매개되기도 하지만 불안 자체가 또래관계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 중 불안과 우울로 인해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맺지 못하는 등의 또래관계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상담이나 생활지도상의 접근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부적 정서, 우울, 불안, 또래관계문제, 인지변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초등학생

*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고, 2008년도 한국심리학회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경, 배영초등학교, 경남 진주시 신안동 710-1번지

Tel : 055-742-9541, E-mail : 99rivers@naver.com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생활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생의 초기에는 부모와 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시기에는 유치원, 학교와 같은 비교적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또래,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간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가정과 사회로의 적응과 발달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슷한 나이의 또래집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이들은 또래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도 갖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유능감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또래관계는 아이들이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또래는 사회적 모델이자 사회적 행동의 강화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Grusec & Lytton, 1988).

아동기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부모관련과 자아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 자아관련변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적 정서를 들 수 있다. 이 중 부적 정서는 분노,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공포, 신경증과 같은 다양한 혐오적 정서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정서는 긴장불안, 의기소침과 낙심, 피곤과 무기력, 혼돈과 당황, 분노와 적개심 등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즉 행동이 느리고 쉽게 피곤을 느끼고 무기력하고 긴장과 불안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고, 분노 수준이 높은 아동은 외현적인 공격행동을 나타내어 또래들로부터 기피될 수 있다. 또한 부적 정서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부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도 높아진다(김선희, 김정연, 1999; Eisenberg & Fabes, 1994).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적 정서를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능력이 낮아서 또래가 나타내는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종호, 2005). 수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서투르며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도전적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결과 이들은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비웃음의 대상이 되거나 타인의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한다. 결국 이 유형의 아동들이 갖는 부적절하고 복종적 태도는 집단 따돌림의 위협을 증가시키게 되고(장휘숙, 2001) 또래관계문제는 계속 순환된다. 또래관계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부적 정서 중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가장 많이 나타낸다(Patterson, Kupersmith & Grieseler, 1990). 내향성과 신경증적 성향 및 불안감, 낮은 자아존중감, 수줍음, 우울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 등과 같은 특성이 외로움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하게 작용한다(Hojat, 1982 a,b,c; Horowitz & French, 1979; Jones, Freeman, & Goswick, 1981; Ouellet & Joshi, 1986; Rubenstein & Shaver, 198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적 정서를 지닌 아동에게 원만한 또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돕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라 할 수 있다.

부적 정서와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룬 최근의 연구들을 개관해보면 부적 정서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 아동이 부적 정서를 극복하고 상황에 대처하여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아동의 적응적 체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Murphy & Eisenberg, 1996). Stocker와 Dunn(1990)에 따르면 또래관계에서 거부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동들은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긍정적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부적 정서수준이 높고 동시에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외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또래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Eisenberg, 1995). 짜증이 많고 부주의하며, 쉽게 위축되고 자주 놀라거나 우는 아동도 또래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Pope & Bierman, 199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뿐만 아니라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아동은 압도되고 자기초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산출하거나 평가할 수 없고,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울기, 두려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래들에게 거부될 수 있다(권연희, 박경자, 2003). 분노 같은 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성 같은 행동으로 표출하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임연진, 2002).

정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우리의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형성은 다른 양상을 지닌다(김은경, 2008). 부적 정서를 일으키는 선행 요인으로서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지모형의 가정과는 달리 인지가 기분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Ball et al., 1995; Miranda, Persons, & Byers, 1990), 부적 정서가 개선되면 부정적인 사고와 역기능적인 태도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Dohr, Rush, & Burnstein, 1989; Fava, Bless, Otto, Pava, & Rosenbaum, 1994) 인지내용의 변화가 사회 적응과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Hope, Heimberg, & Bruch, 1995; Newman Hofmann, Trabert, Roth, & Taylor, 1994). 또한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개인적 전략은 개인 안에 있으며, 개인적으로 작용한다(Masters, 1991)는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부적 정서를 다루는 개인적 전략이 강조되고 개인의 인식과 이해에 따른 인지적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연구들은 부적 정서가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인지적 표상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할 때 이러한 유능감이 또래수용 경험을 높이고, 또래거부 경험을 적게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이귀숙, 정현희, 2006).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양원경, 도현심, 1999) 사회적 지지가 낮은 아동은 자아지각이나 자아존중감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래로부터의 지지, 친밀, 우의와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도

정적 관계가 있어서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였다(강민주, 1993; 이주리, 1994; 최용주, 이재연, 1993; 한종혜, 1996).

아동기에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고(Bachman, 1982; Rosenberg, 1989; Kurdek & Sinclair, 1988; Ohannessian, 1992), 부모, 또래, 교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기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insberg, Gottman, & Parker, 1986; Parker & Asher, 1987; Ebata, 1987).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이주은, 199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고 이후의 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Sarason & Sarson, Pierce, 1990).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죽음, 만성적인 질병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인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할 수 있다(Cowen, Pedro-Carrol, & Alpert-Gillis, 1990; Sandler, Miller, & Wolchik, 1989). 이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아동 자신에 대한 유능감이 결합되면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Cairns & Cairns, 1988). 특히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부모,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적응 상

황에 직면하여 불안하고 긴장을 느낄 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고 대처자원의 역할을 한다(한태희, 2004). 특히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았다(김세원, 2003; 소영원, 2006)

인간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은 바람직한 환경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Medinuss, 1965; Wylie, 1979).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Cooley, 1902; Rosenberg, 197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또래관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높은 자기가치감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긍정적 자아감은 주변 또래와의 관계에 반영될 수 있다(도현심, 김선미, 2006). 즉 아동기의 부적응적인 또래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위의 연구들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지각된 자기유능감 같은 과정적 변인들은 원인자 역할을 하는 준거변인과 결과변수 사이에서 매개적 기능(mediator function)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적 정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유능감 같은 인지변인의 매개를 통하여 또래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평가하고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각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신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지각된 자기유능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적 정서를 다루는 인지적 변인들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예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유능감을 인지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부적 정서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변인 중에서 어느 하나의 매개변인만을 사용하여 직선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적 정서가 아동의 인지적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동의 부적 정서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지 변인들을 하나의 인지변인으로 가정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아동의 적응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지적 변인들을 하나의 인지변인으로 가정해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의 상호작용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 정서, 또래관계문제, 인지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언변인인 부적 정서가 결과변인인 또래관계문제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

지, 지각된 자기유능감과 같은 인지변인을 하나의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적용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 정서가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인지변인이 매개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아동이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부적 정서로써 우울, 불안, 분노는 또래관계문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부적 정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후 사회로의 적응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또래관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를 할 때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여야 할지 등에 대해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2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5개의 검사지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개별 문항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시하거나 누락시킨 문항수가 각각의 질문지 문항수의 5% 이상이거나 극단치가 있는 자료 109명을 제외

한 4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4학년 159명(여학생 76명), 5학년 170명(여학생 88명), 6학년 162명(여학생 91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각 9.90세, 10.86세, 11.83세이었다. 그리고 전체 442명의 평균나이는 10.87세(SD=.87)이었다.

측정도구

부적 정서 척도

아동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적 정서로 우울, 불안, 분노를 들 수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검사들의 문항을 선별해서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은 한국아동인성검사 아동보고형(홍상황, 황순택, 2004)의 14문항과 15문항, 분노는 한국판 STAXI (Spielberger, 1988)에서 분노하는 경향성의 안정된 개인차를 측정하는 특성분노 10문항과 분노의 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표현 양식 24 문항을 사용하였다. STAXI에서 분노 표현은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를 측정하는 각각 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척도에서는 개별 문항에 대해 자신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 전체 63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3, 하위 요인 중 우울은 .81, 불안은 .85 그리고 분노는 .90이었다.

우울, 불안, 분노척도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문항을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프로맥스회전(promax rotation, Kappa=4)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고유치(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이 3개 추출되어,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요인

형태계수가 2개 이상의 요인들 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1개 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66%를 설명하고, 우울의 하위 요인 1은 증상적 우울로 28.41%, 요인 2는 소외로 7.78%, 요인 3은 사회적 위축으로 3.79%를 설명하였다. 우울 전체 13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1,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77, 요인 2는 .70, 요인 3은 .62였다.

불안은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나, 스크리검사(scree test)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3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고 15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9.40%를 설명하고, 불안의 하위 요인 1은 예기 불안으로 29.94%, 요인 2는 신경증적 불안으로 4.37%, 요인 3은 공포증으로 3.06%를 설명하였다. 불안 전체 15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5,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81, 요인 2는 .70, 요인 3은 .58이었다.

분노는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6개 추출되었으나, 스크리검사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요인의 수를 4로 지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하고 34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32%를 설명하고, 분노의 하위 요인 1은 특성분노로 24.65%, 요인 2는 분노억제로 8.59%, 요인 3은 분노조절로 3.38%, 요인 4는 분노표출로 2.96%를 설명하였다. 분노 전체 3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89, 요인 2는 .79, 요인 3은 .78, 요인 4는 .74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것을 Gurney(1988)가 재진술한 개정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 SEI)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정된 자아존중감 검사는 허위문항(5)을 포함하여 전체 37문항이었는데, 연구대상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초등학교 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검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여 허위문항을 제외한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에 대한 일반적 자아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General Self), 친구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사회적 자아(Social Self-Peers),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보는 가정적 자아(Home-Parents), 그리고 학교 적응과 학습에 대한 자기의 지각을 알아보는 학교 자아(School-Academic)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3), 그렇다(2), 아니다(1), 전혀 아니다(0)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79, 사회적 자아존중감 .61, 가정적 자아존중감 .6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1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 내적합치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72, 사회적 자아존중감 .53, 가정적 자아존중감 .4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64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85였다.

지각된 자기유능감 척도

초등학교의 자기유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CC)를 배주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유능감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아동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생활영역인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등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self-worth)영역 등, 총 6개 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는 진술문을 읽어보고 아동 자신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한 후, 다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약간 그러한지 또는 매우 그러한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36문항을 주축분해법, 프로맥스회전(Kappa=4)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8개 추출되었으나, 스크리검사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4개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방법으로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4요인은 전체 변량의 43.46%를 설명하고, 요인 1은 일반유능감 지각으로 23.18%, 요인 2는 자기만족 지각으로 5.95%, 요인 3은 또래 유능감 지각으로 4.98%, 요인 4는 수행유능감 지각으로 3.05%를 설명하였다. 한태희(2004)의 척도 전체 3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고, 요인 1은 .83, 요인 2는 .78, 요인 3은 .81, 요인 4는 .8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36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85, 요인 2는 .73, 요인 3은 .77, 요인 4는 .79였다.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24문항을 초등학교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한태희(2004)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는 도움, 인정, 관심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0~3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태희(2004)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에서 3개 문항의 요인 형태계수가 2개 이상의 요인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3문항을 제외한 21문항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3,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91, 요인 2는 .90, 요인 3은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24문항을 주축분해법, 프로맥스회전(Kappa=4)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나, 스크리검사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3개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3요인은 전체 변량의 63.51%를 설명하고, 요인 1은 지각된 가족지지로 32.42%, 요인 2는 지각된 친구지지로 11.22%, 요인 3은 지각된 교사지지로 9.29%를 설명하였다. 전체 2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1,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요인 1은 .91, 요인 2는 .89, 요인 3은 .88이었다.

교우관계문제 검사

아동의 또래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혜원(2007)이 구성한 교우관계문제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KIIP-C; 김영환, 홍상황, 1999)를 바탕으로 아동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동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자기보고형의 검사지이다. 총 64문항의 4점 평정척도로 친구나 또래관계에서 ‘~ 하기가 어려워’ 경험할 수 있는 문제 31문항, ‘너무 또는 지나치게 ~하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정혜원(2007)의 연구에서 각 문항의 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회전(varymax rotation)을 하여 친애(냉담, 사회적 억

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와 통제(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두 요인이 추출되었고, 교우관계문제의 점수를 나타내는 6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4였고 8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0~.81의 범위에 있으며 전체 문항의 반분신뢰도는 .83이었고 8개 하위척도의 반분신뢰도는 .67~.78의 범위에 있다. 본 연구에서 6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5이었고, 8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5~.82의 범위에 있었다.

자료처리와 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적 정서와 자이존증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유능성 지각 및 전체 또래관계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도 지수는 AMOS 4.0(Arbuckle, 200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 관한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값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모형은 자료를 완벽히 설명한다)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χ^2 값이 표본크기의 영향에 아주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오류가 작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TLI(Tucker-Lewis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되고 이

용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 3가지 지수에 근거하여 적합도를 상호 비교하였는데, 이 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CFI가 0.90이상, TLI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모형인데 대략 0.90이상이면 좋은 모형이고, RMSEA는 0과 1 사이이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며 0.05 이하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기준(홍세희, 2000)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 간의 상관

아동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적 정서와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유능감, 통제와 친애, 또래관계문제 간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래관계문제는 부적 정서 중 불안($r(491)=.59, p<.01$), 우울($r(491)=.61, p<.01$), 분노($r(491)=.43, p<.01$), 통제($r(491)=.87, p<.01$), 친애($r(491)=.96, p<.01$)와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r(491)=-.64, p<.01$), 지각된 자기유능감($r(491)=-.48,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r(491)=-.42, p<.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회귀분석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F=$

표 1.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 간의 상관

| | 불안 | 우울 | 분노 | 자아 존중감 | 자기 유능감 | 사회적 지지 | 통제 | 친애 |
|--------|---------|---------|---------|-----------|-----------|-----------|--------|--------|
| 우울 | .611** | | | | | | | |
| 분노 | .418** | .518** | | | | | | |
| 자아존중감 | -.523** | -.757** | -.541** | | | | | |
| 자기유능감 | -.392** | -.556** | -.322** | .702** | | | | |
| 사회적 지지 | -.278** | -.508** | -.322** | .588** | .548** | | | |
| 통제 | .479** | .516** | .529** | -.543** | -.351** | -.359** | | |
| 친애 | .572** | .586** | .320** | -.624** | -.497** | -.406** | .699** | |
| 또래관계문제 | .588** | .612** | .426** | -.642** | -.476** | -.416** | .869** | .964** |

* $p<.05$ ** $p<.01$

표 2.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단계 | 변인 | Beta | t | R ² | ΔR ² | F |
|----|-------|-------|-----------|----------------|-----------------|------------|
| 1 | 자아존중감 | -.642 | 28.311*** | .412 | .412 | 343.054*** |
| 2 | 자아존중감 | -.461 | 14.891*** | .500 | .088 | 243.819*** |
| | 불안 | .347 | 9.240*** | | | |
| 3 | 자아존중감 | -.377 | 8.798*** | .507 | .007 | 166.852*** |
| | 불안 | .306 | 7.548** | | | |
| | 우울 | .139 | 2.638*** | | | |

*** $p < .001$

343.054, $p < .001$)으로 설명변량은 41.2%이었고, 불안, 우울 변인이 각각 9, 1% 정도의 설명변량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3가지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50.7%였다.

앞서 지적된 변인들 간의 상관패턴과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첫째, 부정 정서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불안과 우울이 분노보다 또래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초등학교생의 또래관계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수로 지적된 자아존중감 변인은 부정 정서가 또래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 마지막으로 포함시킨 변인의 잔여분산을 계산하고 변인간 상관이 높을 경우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아존중감 변인과 지각된 자기유능감은 자신의 유능감과 역량을 지각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변인간 상관이 높고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아동이 대부분의 사회성을 경험하게 되는 환경인 학교에서 또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또래관계문제와 밀접한 관

련을 지니고,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지각할수록 적응수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김세원, 2003; 소영원, 2006)를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의 지각도 인지변인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인이 어떠한 요인 구조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변인들을 주축분해법, 베리맥스회전(varymax rotation)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1개 추출되어 인지변인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관과 회귀분석에서 부정 정서와 또래관계문제 간의 의미있는 변인들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부정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모형

아동의 부정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따랐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알아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모형간 적합도 지수를 비교 검증하고, 다음으로 두 모형이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모형간 χ^2 차이 검증 결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 그 적합한 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이 완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고,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에서 완전매개를 나타내는 모형 I 과 부분매개를 나타내는 모형 II를 경쟁모형으로 두고 자유도(df)와 χ^2 값의 차이, CFI, T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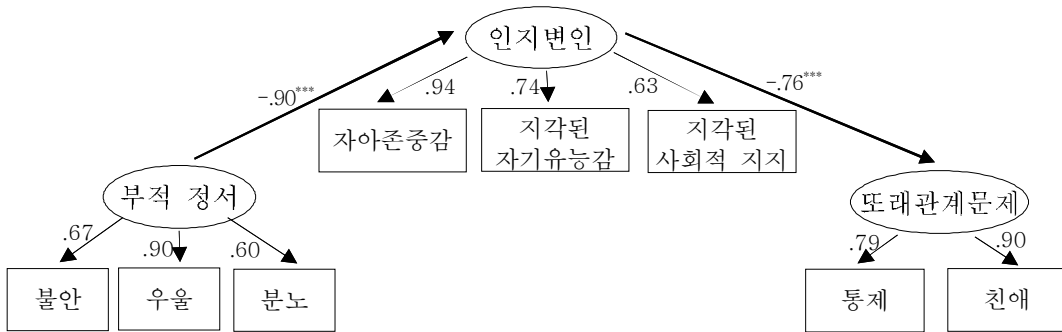


그림 1. 또래관계문제모형 I: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모형(**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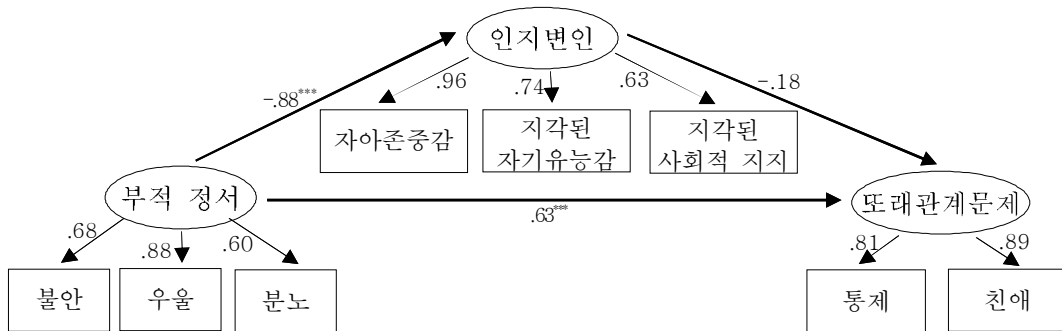


그림 2. 또래관계문제모형 II: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부분매개모형(** $p < .01$ *** $p < .001$)

표 3. 또래관계문제모형 I 과 또래관계문제모형 II의 적합도 지수 비교

| 검증모형 | df | CMIN(χ^2) | CMIN/df | p | CFI | TLI | RMSEA |
|-------|----|------------------|---------|------|------|------|-------|
| 모형 I | 18 | 191.770 | 10.654 | .000 | .919 | .837 | .140 |
| 모형 II | 17 | 166.235 | 9.779 | .000 | .930 | .852 | .134 |

RMSEA를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I 과 모형 II는 χ^2 값이 높고, p 값이 .000으로 .05 이하이므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CFI지수는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나, TLI 값이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이하이며, RMSEA 값이 .10이상으로 나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아동의 불안과 또래관계문제모형

또래관계모형 I 과 모형 II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적합도 지수의 값이 만족되지 않아,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또래관계모형을 수정하였다. 즉 부적 정서의 측정변인인 불안, 우울, 분노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두고 인지변인은 지각된 자기유능감이 제거되어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정된 인지변인의 매개를 가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자기유능감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평가, 자아존중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 개념으로(서재연, 1998)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지각된 자기유능감을 제거하고 또래관계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자아존중감을 두었다. 또한 또래관계문제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때 아동이 주로 경험하는 학교, 가정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지지 지각 변인을 인

지변인으로 두어,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인지변인으로 수정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또래관계문제를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수정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 중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이 완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고,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이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모형 IV는 χ^2 값이 비교적 낮고 p 값이 .297로 설명력이 유의미하며 CFI 값이 .999로 좋은 모형의 기준을 판단하는 .90이상이고, TLI 값이 .997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이상이며, RMSEA 값이 .022로 간명성을 나타내는 좋은 적합도인 .05이하이므로 전반적으로 좋은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형 III과 비교하여 자유도가 1 감소하였을 때 $\alpha=.05$ 수준에서 χ^2 값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한 48.0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 III보다는 모형 IV가 더 나은 설명력을 지닌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만큼

표 4. 또래관계문제모형 III과 또래관계문제모형 IV의 적합도 지수 비교

| 검증모형 | df | CMIN(χ^2) | CMIN/df | p | CFI | TLI | RMSEA |
|--------|----|------------------|---------|------|------|------|-------|
| 모형 III | 4 | 51.777 | 12.944 | .000 | .952 | .819 | .156 |
| 모형 IV | 3 | 3.689 | 1.230 | .297 | .999 | .997 | .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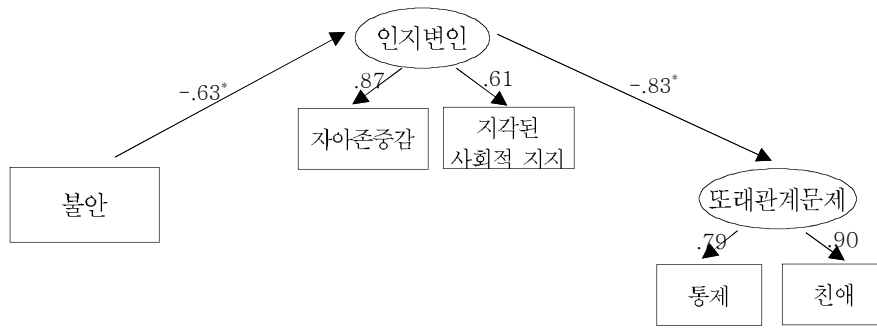


그림 3. 또래관계문제모형 III: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모형(**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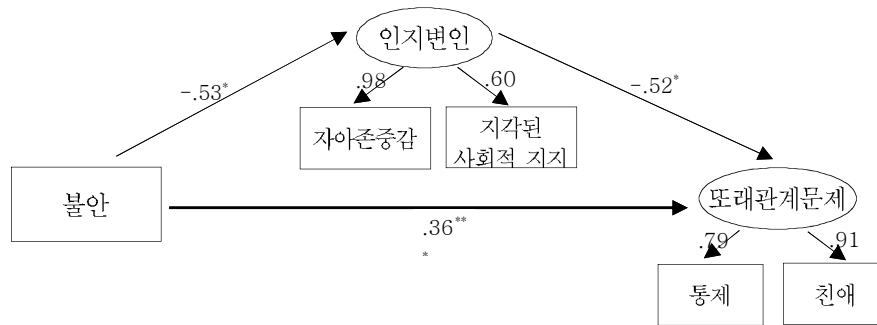


그림 4. 또래관계문제모형 IV: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부분매개모형(** $p < .01$ *** $p < .001$)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 매개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된 모형 IV의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효

과를 검증할 때는 각 매개변인(인지변인)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한지 평가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각각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표 5. 또래관계문제모형 IV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 경로 |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계수 | S.E (표준 오차) | C.R (t 값) |
|---------------|-------------------|---------|----------------|--------------|
| 인지변인 ← 불안 | -.843 | -.53*** | .062 | -13.518 |
| 또래관계문제 ← 인지변인 | -.369 | -.52*** | .047 | -7.872 |
| 또래관계문제 ← 불안 | .399 | .36*** | .056 | 7.131 |

** $p < .01$ *** $p < .001$

의 경로가 유의하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명력 있다고 판단되어진 또래관계모형 IV의 변인 간의 직접 경로는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인지변인)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의 C.R(t 값)이 각각 1.96이상($p < 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경로의 추정치를 이용해 Aroian(Aroian, 1944) 공식 또는 변형된 Sobel(Baron & Kenny, 1986)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6). 따라서 $Z = 6.785$ 이므로 $\alpha =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매개변인을 포함한 각 변인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지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형 IV를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인지변인이 불안과 또래관계문제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초등학생에게 있어 불안이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지지 지각의 인지변인을 통해 또래관계 문제에 주는 간접적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불안 자체가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 부모, 교사 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관계문제를 덜 경험하며, 불안 경험이 적을수록 또래관계문제를 덜 경험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우울과 또래관계문제모형

불안 다음으로 또래관계문제를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수정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 중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이 완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고,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이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모형 V와 모형 VI은 χ^2 값이 비교적 낮고 p 값이 .368, .924로 설명력이 유의미하며 CFI, TLI 값이 좋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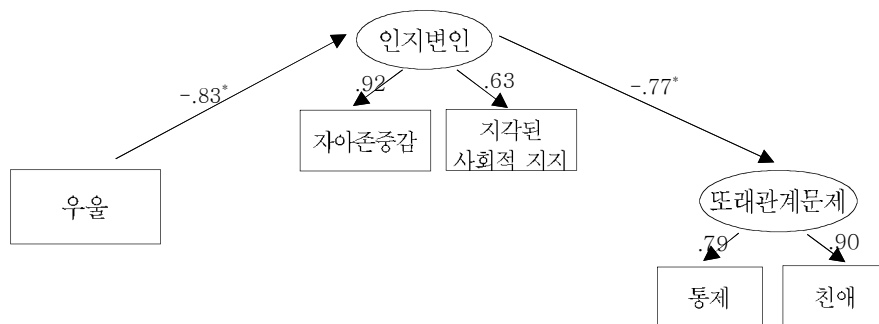


그림 5. 또래관계문제모형 V: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모형(**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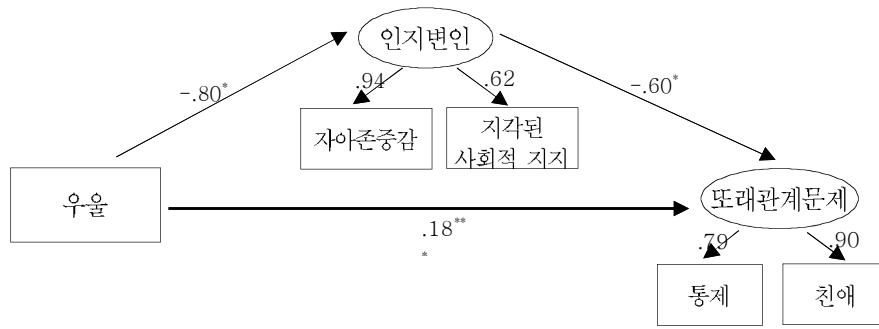


그림 6. 또래관계문제모형 VI: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부분매개모형(** $p < .01$ *** $p < .001$)

표 6. 또래관계문제모형 V와 또래관계문제모형 VI의 적합도 지수 비교

| 검증모형 | df | CMIN(χ^2) | CMIN/df | p | CFI | TLI | RMSEA |
|-------|----|------------------|---------|------|-------|-------|-------|
| 모형 V | 4 | 4.289 | 1.072 | .368 | 1.000 | .999 | .012 |
| 모형 VI | 3 | .476 | .159 | .924 | 1.000 | 1.010 | .000 |

의 기준인 .90이상이고, RMSEA 값이 간명성을 나타내는 좋은 적합도인 .05이하이므로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VI이 V에 비해 높은 설명력과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 V와 비교하여 자유도가 1 감소하였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χ^2 값의 임계치인 3.84를 넘지 못한 3.8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

히 감소하지 못했으므로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된 모형 V의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이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매개변인(인지변인)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한지 평가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명력 있다고 판단되어진 또래관계모형

표 7. 또래관계문제모형 IV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 경로 |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계수 | S.E (표준 오차) | C.R (t 값) |
|---------------|-------------------|---------|----------------|--------------|
| 인지변인 ← 우울 | -1.340 | -.80*** | .052 | -25.726 |
| 또래관계문제 ← 인지변인 | -.438 | -.60*** | .073 | -5.983 |
| 또래관계문제 ← 우울 | .223 | .18 | .105 | 2.123 |

** $p < .01$ *** $p < .001$

V의 변인 간의 직접경로는 표 7과 같다.

표 7을 살펴보면 매개변인(인지변인)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의 C.R(값)이 각각 1.96이상($p < 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경로의 추정치를 이용해 Aroian(Aroian, 1944) 공식 또는 변형된 Sobel(Baron & Kenny, 1986)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6). 따라서 $Z = 5.8395$ 이므로 $\alpha =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매개변인을 포함한 각 변인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지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형 V를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인지변인이 우울과 또래관계문제를 완전매개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초등학생에게 있어 우울이 또래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인지변인을 통해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미

하였다. 우울을 경험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 부모, 교사 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관계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분노와 또래관계문제모형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적 정서인 불안, 우울, 분노 중에서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수정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생의 부적 정서 중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이 완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고,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이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인지변인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에서 완전매개를 나타내는 모형 VII과 부분매개를 나타내는 모형 VIII을 경쟁모형으로 두고 자유도(df)와 χ^2 값의 차이, CFI, TLI, RMSEA를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VII과 모형 VIII은 χ^2 값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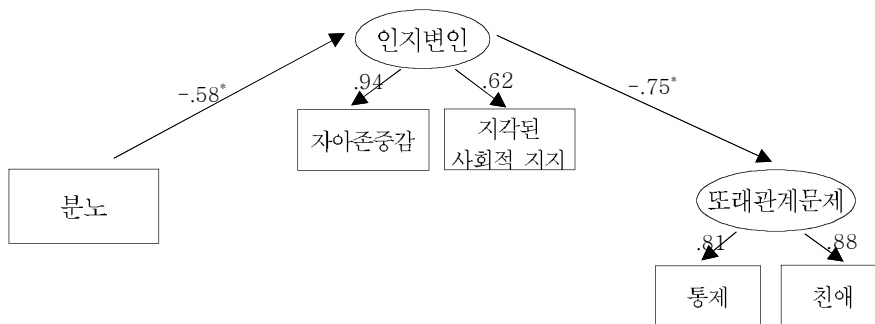


그림 7. 또래관계문제모형 VII: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모형(**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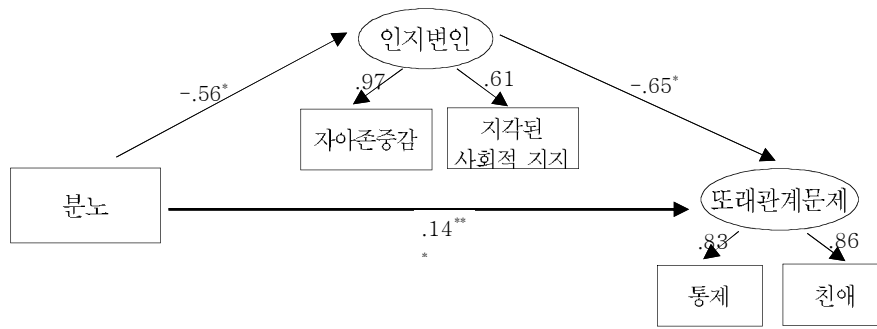


그림 8. 또래관계문제모형 VIII 분노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부분매개모형(** $p < .01$ *** $p < .001$)

표 8. 또래관계문제모형 VII과 또래관계문제모형 VIII의 적합도 지수 비교

| 검증모형 | df | CMIN(χ^2) | CMIN/df | p | CFI | TLI | RMSEA |
|---------|----|------------------|---------|------|------|------|-------|
| 모형 VII | 4 | 80.078 | 20.019 | .000 | .924 | .717 | .197 |
| 모형 VIII | 3 | 75.325 | 25.108 | .000 | .928 | .641 | .222 |

고, p 값이 .000으로 .05이하이므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CFI 지수는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나, TLI 값이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이하이며, RMSEA 값이 .10이상으로 나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유능감 등의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적 정서,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래관계문제를 또래의 수용과 거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나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이러한 변인들을 하나의 인지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우울, 불안, 분노를 부적 정서라는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했을 때보다 부적정서의 하위 측정변인 중 불안과 우울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고 인지변인 중 지각된 유능감을 제외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정된 인지변인을 가정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안,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요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또래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이었고, 이 세 가지 변인의 설명변량은 50.7%이고, 그 중 자아존중감에 의한 설명변량이 41.2%,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의한 설명변량이 50.0%로 높았다. 이 결과는 부정적인 가치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가치에 대해 강한 불안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의 요소를 환경에 투영함으로써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아동이 자신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또래에게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게 되어 또래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는 긴장과 혼돈, 당황의 불안요인, 의기소침과 낙심, 무기력과 피곤의 우울요인 그리고 적개심 등의 분노요인의 세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부적 정서를 불안, 우울, 분노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또래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적 정서가 또래관계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 정서가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고 부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선희, 김경연, 1999; Eisenberg & Fabes, 1994) 결과와 차이가 있다. 불안, 우울, 분노를 부적 정서라는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또래관계문제와의 관계를 검증했을 때 RMSEA 값이 .134~.152의 .05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낮았고, 기존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부적 정서 중 불안, 우울, 분노의 요인이 각기 다른 매개경로를 가지거나 인지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을 통해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분노 요인이 어떠한 매개경로를 통해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불안은 인지변인의 부분매개효과가 그리고 우울은 인지변인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주축분해법으로 배리맥스회전하여 인지변인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지만,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효과적인 설명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지각된 자기유능감 변인을 제거하고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인지변인으로 추출하여 인지변인을 수정하였을 때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자기유능감과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문제와 관련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실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자기유능감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평가, 자아존중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서재연(1998)의 연구를 볼 때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자기유능감 간에 뚜렷한 변인차가 없고 공통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지각된 자기유능감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면 또래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다른 변인과 동시에 연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같이 고려해보면, 불안과 우울,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른 어떤 변인보다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를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래관계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초등학생의 불안, 우울의 부적 정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인지변인,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인지변인은 불안과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불안은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사회적 지지 지각과 같은 부정적 인지변인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초등학생의 부정적 인지변인은 불안과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작용을 한다.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또래관계문제모형 IV에서 지적된 것처럼 불안 자체가 또래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동의 부정적 인지변인에 의한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부분매개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아동들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학업, 신체, 외모, 대인관계 등에 대한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사회적 지지 지각을 통해서 외로움이나 부적응 같은 또래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안의 경험 자체를 낮추는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대인불안이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생활에 심한 부

적응을 초래하는 유해한 요인이 되며(Morris & Masia, 1998),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과 회피를 일으킨다는(LeMare & Lollis, 1990)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청소년은 급우들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사회적 수용도 낮다고 지각한다(LaGreca & Lopez, 1998)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의 인지변인과의 상관연구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불안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의 인지변인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인지변인은 우울과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사회적 지지 지각과 같은 부정적 인지변인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초등학생의 부정적 인지변인은 우울과 또래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작용을 한다. 대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이 자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하는 경우 또래관계문제를 예언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

을 경우 또래관계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한 학생은 사회적 능력에 대해 자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윤선자(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전략의 역할을 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의 위협이나 공격을 참지 않고 단호하고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또래의 공격을 당하기보다는 단호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집단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며(Egan & Perry, 1998) 낮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은주, 2002)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의 인지변인과의 상관연구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우울과 또래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의 인지변인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두고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부정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진 자아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인지변인으로 설정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통해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불안과 또래관계문제, 우울과 또래관

계문제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매개변인들이 또래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불안과 우울로 인한 또래관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실제 초등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할 때 각각의 또래관계문제에 대해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문제를 또래의 수용과 거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또래관계와 관련된 단편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또래관계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또래관계에서 주장성이나 공격성, 사회적 억제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우호적 지배성이나 과관여, 통제, 지나친 허용과 배려, 민감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측정하여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또래관계문제를 측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불안과 우울의 부정 정서와 또래관계문제에서 인지 변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상담 예방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 정서로 인해 또래관계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개인의 인지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순환되는 또래관계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현장에서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맺지 못해 또래관계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걱정이 많거나 공포증 등의 불안과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피곤과 무기력 등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학업, 운동, 대인관계 등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또래, 교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지각하고 있는지 등의 인지변인을 탐색하는 상담이나 생활지도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 우울과 또래관계문제 간을 매개하는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교정하고 긍정적인 인지 처리를 훈련하는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이때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사회적지지 등의 부정적 인지변인의 원인이 되는 불안과 우울을 함께 교정하는 인지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6학년은 발달적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신체적, 인지적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고 저학년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불안과 우울, 분노의 부적 정서가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의미있는 설명값을 보인 변인은 불안, 우울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 하나뿐이었고 부적 정서와 인지변인을 함께 고려해서 설정한 또래관계문제모형이 적절한 적합도 값인 .90이상과 .05수준 이하에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와 또래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를 편이상 아동들이 많이 호소하는 불안, 우울, 분노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부적 정

서와 인지변인을 보다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38.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김옥란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부적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 김선미 (2006).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7-126.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동건, 조현주, 최대정 (2004). 직장에서의 특정 부적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이 수행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31-852.
- 박종효 (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9-35.

- 박화윤, 안라리 (2005). 유아의 형제관계의 질과 또래유능성 및 정서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91-108.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재연 (1998). 유능감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자기 지각과 타인지각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소영원 (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설하 (2005). 수줍음과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분노표현양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유림 (2007).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과 외현적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77-85.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양복금, 김경희 (2001). 아동의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또래수용과의 관계. *한국가정복지학회지*, 6(1), 71-87.
-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윤선자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가 학령 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 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17.
- 이은주 (2002). 내·외향적 행동문제와 집단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지*, 15(2), 345-363.
- 이은주 (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지*, 16(2), 283-300.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이혜원, 양옥승 (2006).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지*, 26(2), 69-92.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정하, 정옥분 (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63-175.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정선진 (2001). 학령기 행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22(3), 91-106.
- 정혜원 (2007).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경 (2006). 아동의 또래 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33-145.
- 최보가, 전귀연 (1993).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논문집*, 24, 1-15.
- 최영희 (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7-32.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한태희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변인과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검증.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재홍 (2005). 자율신경계 신체반응, 인지과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83-100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홍세희 (2006).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성균관대학 BK21 문화역량사업단 강의 자료집*.
- Beiser, M. (1974). Components and correlates of ment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320-32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ssidy, J., Parke, R, Butkosky, L., & Braungart, J.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lark, L. A., & Watson, D. (1986, August). *Diurnal variation in mood: Interaction with daily events and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Clark, L. A., & Watson, D. (1988). Mood and the mundane: Relations between daily life events and self-reporte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96-308.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strategies: Their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negative emotion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2-232.
- Emsile, G. J., & Mayers, T. L., (1999). Depression in child and adolescent; A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CNS Drugs*, 11(3), 181-189.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Springer-Verlag.
- Hall, C. A. (1977).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pleasure and di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over a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Hodges, E. V., Michel, B., Frank, V.,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s: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orowitz, L. M., & French, R. de s. (1979). International problems of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lone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4), 762-764.
- Jones, W. H., Freeman, J. E., & Goswick, R. A. (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1), 27-48.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LaGreca, A. M., & Lopez, M.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 K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452-458
- Ouellet R., & Joshi, P. (1986). Loneliness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58*, 821-822.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e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Rubenstein, C. M.,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06-223).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ussell, J. A. (1980). A co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ri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tone, A. A. (1981).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ptions of daily experiences and self-and spouse-rated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510-522.
- Tellegen, A. (1985). Structure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essler, R., & Mechanic, D. (1978).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54-262.
-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 (1983). On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44-651.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s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ills, T. A. (1986). Stress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substance use in urban school samples. *Health Psychology*, 5, 503-529.
- Zevon, M. A., Tellegen, A. (1982). The structure of mood change: An ideographic/nornothet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1-122.
- 원고접수일 : 2008. 0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4.
게재결정일 : 2008. 11. 20.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Variables on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egative Affec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Hyeon-kyeong Kim

Sang-Hwang Hong

Baeyoung Elementary School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variables on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egative affec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The 4th~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 of negative affect, self-esteem, perceived self-competenc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491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nxiety, depression, anger,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elf-competency explained the peer relationship problems. It was shown that the variable explaining the peer relationship problems was the highest in the self-esteem, next the anxiety and depression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assumed as the mediating variables o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affect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verified it with comparis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variables of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 the peer relationship problems on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But anxiety itself would make peer relationship problems. Second, the cognitive variables of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the complete mediator o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The result gives a sugges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d among the anxiety, dep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give a counseling and living guide to train an affirmative cognition process and attempt to lower the experience itself about the anxiety directly causing the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negative affect, depression, anxiety, peer relationship, cognitive variables,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elementary school student